

# 子女의 食習慣 育成에 미치는 父母의 影響에 關한 調查研究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食品營養學科

金 基 男 · 牟 壽 美

=Abstract=

## A Study of Children's Dietary Habits,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s

Kinam Kim and Sumi M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determine nutrition education needs and related problems, a study was conducted of children's dietary habits,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 and degree of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on foods liked, accepted, or disliked, in addition to a general survey of food attitude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out a two-month period, June to July of 1974. One thousand children of both sexes, from the fifth grad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of Seoul city, and their 2,000 matched parents, were surveyed. Teachers distributed questionnaires in the classroom and assisted the children in answering. Questionnaires also were distributed to the parents through their children, after the teachers explained the procedure of study.

As to the influence of parents' food preferenc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reached, in light of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s conducted:

1. Agreement between mother and child on food preference was much higher than that between father and child, regardless of sex or birth order of the child. This observed difference in degree of agreement was greatest for children in the middle birth order, and greater for girls than for boys.

2. Various food attitudes:

a. Food preferences: Beef, milk, and mandoo (boiled or steamed, filled dumplings) were extremely well liked by all subjects, regardless of age or sex. Cucumber, lettuce, and spinach also were liked. Most disliked foods were fatty layers of pork and liver. Cooked rice in the too wet or too dry state and pork were low preference items.

b.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dietary practic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wife and higher income level of the famil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knowledge of nutrition, and interest in family nutrition and in introducing new foods to the family. But use of food as prize or punishment was found, regardless of the mother's educational and economic status.

c. Change of food habit: Over 70 percent of subjects had changed and improved their dietary habits, mostly by reason of husbands' and wives' mutual influence after marriage.

This study emphasized the great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for mothers, and their prominent role and responsibility in guiding the family to better nutrition, whatever the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 I. 緒 論

健康增進과 疾病豫防에 있어 좋은 營養(完全營養)의 維持는 必須不可缺한 要件이 된다. 完全營養은 本能的인 食欲과 嗜好에 의한 滿腹感이나 滿足에서 自然的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營養知識에 의한 營養實踐에서 이루어진다<sup>1)</sup>. 營養實踐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個人的 올바른 食習慣 形成이다<sup>2)</sup>. 食習慣의 一般的 要因으로는 各 家庭의 經濟水準과 傳統的인 慣習, 宗教, 家族間의 影響, 教育水準 및 文化的 惠澤 등을 들 수 있는데<sup>3)</sup> 個人的 食習慣 形成과 育成은 短時日內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長期間에 걸친 家庭教育, 學校教育 및 社會教育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個人的 食習慣 育成에 미치는 教育的 효과는 無視될 수 없다.

특히 個人的 食事が 家庭을 中心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父母의 子女에 對한 營養教育 및 指導는 重要하며 따라서 父母가 子女의 食習慣 育成에 미치는 影響은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Wilson<sup>3)</sup>은 子女의 食習慣에 미치는 아버지의 影響을 調査하여 意味있는 結論을 내린바 있고 Stasch<sup>4),5)</sup> 등은 母의 影響을 強調하였다. 牟<sup>6)</sup>도 食品選擇과 關聯지어 한 家庭의 食生活을 健全하게 營爲하는 責任이 主婦에게 있다고 말하였고, 玄<sup>7)</sup>도 그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牟<sup>2),7)</sup> 등에 의한 食習慣이 主題가 된 若干의 研究文獻들이 소개되었으나 子女의 食習慣 育成에 미치는 父母의 影響을 父, 母 同時에 調査한 研究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食習慣에 있어서 父母子의 一致度를 子女의 性別, 出生順位別로 調査함으로써 父母가 子女의 食習慣 育成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를 알아 보는 동시에 各種 食習慣에 대한 이들의 傾向을 把握하는데에 目的을 두고 本 研究 結果가 食習慣 指導를 위한 有益한 營養教育的 基本資料가 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 II. 研究內容

### 1. 文獻調査內容

朴<sup>1)</sup> 등에 의해서 考案된 理想的인 食生活의 循環圖는 食習慣의 重要性을 알리는 동시에 나쁜 食習慣의 長期化는 營養失調과 疾病을 유발하여 人間生活의 不幸과 貧困을 招來케 한다는 것을 警告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이 重要한 食習慣의 形成은 좋은 營養知識과 올바른 營養教育的 普及에서 얻어지며 營養教育은 經濟나 食

糧條件을 不問하고 어떤 社會나 家庭에서도 必要함을 강조하였다.

食習慣에 관한 國內研究은 아직 不振하나 歐美諸國에서는 이미 食習慣에 관한 研究가 많이 報告되어 있다.

Sellings와 Ferraro<sup>8)</sup>는 個人的 食習慣을 변경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指摘하였다. Burgess와 Dean<sup>9)</sup>은 1960년 멕시코에서 開催된 國際精神衛生會議에서 György의 報告內容을 引用하여 食習慣의 頑強性을 說明하였는데 그 內容은 30年前에 美國으로 移注한 구라과인의 어린이들이 제일 처음에 바꾼 것이 衣服이었고 그 다음 言語를 바꾸었으나 食習慣은 남모르게 집에서 들길 수 있는 것이므로 끝끝내 바꾸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Wenkam과 Walf<sup>10)</sup>에 의한 하와이에 거주하는 日本人의 食習慣變化에 관한 研究 結果를 보면 二次世界大戰後 단백질, 지방, 칼로리의 攝取量이 월등 增加하였으며 종래의 日本의 食習慣에서 대폭 歐美化된 것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György 보고와는 대조적인 비교가 된다. 食習慣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多年間을 거쳐서 個性화된 것이므로 食生活 樣式 및 食習慣을 變更하려는 試圖는 일종의 저항을 받게 되며 특히 疾病에 걸렸을 때 가장 困難을 받게되는 것을 Mitchell<sup>11)</sup> 등은 指摘하였다. 食習慣 形成에 있어서 世界諸國에서는 食品禁忌의 是正에 努力하고 있으며 Dema<sup>12)</sup> 등은 食習慣과 食品禁忌는 그 나라의 社會, 文化, 教育, 農業, 經濟條件의 結果임을 指摘하였다. 牟<sup>7)</sup>는 1966년에 韓國農村 26部落에서 農家를 對象으로 하여 各種食品과 加工品, 疾病時에 있어서의 食品禁忌實態調査를 하였는데 戶主의 教育水準, 宗教 및 地域的인 영향과는 거의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共通된 食品禁忌를 發見하여 좋은 營養指導가 시급한 것을 感知하였다. 특히 良質의 단백질 및 營養要求量이 增加된 妊娠, 分娩, 授乳婦와 發育成長의 重大한 時期에 있는 어린이 및 환자들에게 非科學的이며 誤信的인 食品禁忌를 持續해 왔던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一部 나라에서 深刻한 問題가 되고 있는 宗教的인 頑固한 食器禁忌는 없으므로 큰 多幸으로 이 研究結果에서 느낄 수가 있다. Young과 Lafortune<sup>13)</sup>은 싫어하는 特定食品에 대한 原因 가운데에서 宗教的인 要因을 確認하였다.

食品의 嗜好는 바로 食品의 攝取 또는 營養攝取와 直結되는 것으로 Young과 Lafortune<sup>12)</sup>은 特定 食品攝取不足은 그 食品을 싫어하기 때문이며 食品의 嗜好가 營養問題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고 말하였는데 一部 大學寄宿舍의 一學年을 對象으로 한 研究 結果 싫어하

는 食品이 時期的으로는 思春期에 많고 性別에 있어서는 男子보다 女子 對象群에서 發見되었으며 同一材料 食品이라도 調理方法어하에 따라 嗜好度에 큰 差異가 생긴 것을 調査結果에서 알게 되었다. 同研究에서 食品을 싫어하는 도가 높은 것은 버터, 밀크, 시금치, 셀러리등의 녹색채소, 염통, 혀, 반숙계란 등임을指摘하였고 이것은 Hall<sup>14)</sup>등<sup>15-17)</sup>의 報告와 一致한다. 루이지아나州的 12지구의 고등학교 학생을 對象으로 學校給食에 대한 Low<sup>18)</sup>등에 의한 食品嗜好調査 結果를 보면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은 좋아하나 시금치, 갓, 양배추, 당근등을 싫어하며 肉類음식에서는 햄버거, 스파케티를 좋아하는 반면에 pizza를 싫어하는 結果를 보였는데 이것은 Young<sup>13)</sup>등<sup>4, 19-25)</sup>의 보고 내용과 一致한다. Bryan<sup>26)</sup>등<sup>14-17, 21, 22)</sup>은 牛乳를, Lamb<sup>27-29)</sup>등은 생선을 각각 嗜好性이 높은 食品으로 報告하였다.

12州의 취학기前的 아동이 있는 家庭 2,000戶를 選擇하여 3,444名의 어린이를 對象으로 한 Hicks<sup>30)</sup>의 食習慣研究를 보면 많은 父母들이 음식을 賞罰로 어린이에게 주고 있는 事實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子女들의 食習慣形成에 좋지 못한 影響을 주고 있음을指摘하였다. 또 새로운 음식은 어린이절에 자주 주면 폭넓은 食習慣이 育成됨을 덧붙였다.

Breckenbridge<sup>31)</sup>가 5살~11살歲의 51名의 男女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여 食品嗜好 調査를 한 報告를 보면 다른 研究陣<sup>14-13)</sup>의 結果와 비슷하게 익힌 채소를 가장 싫어하며 肉類料理, 아이스크림, 감자, 우유, 신선한 과일을 좋아하였다. 同 研究에서 性別에 따른 각종 食品의 싫어하는 度는 현저한 差는 없었으나 男學生들이 女學生보다 약간 높았다. 그리고 父母와 子女間에 있어서 좋아하는 각 食品의 一致度를 보면 우유를 으뜸으로 하여 빵, 신선한 과일이 높았으며 아이스크림, 캔디, 감자등도 그 다음으로 높았고 생선, 파이, 穀類, 다른 식품과 조리된 肉類등은 낮았다. 이 研究는 父母와 子女의 食品嗜好가 많이 一致됨을 立證하고 있다.

Metheny<sup>32)</sup>등에 의한 35종류에 대한 家族의 食品嗜好調査를 보면 싫어하는 食品이 子女가 父母보다 더 많았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쪽에 더 많았음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 對象群의 어머니들은 녹색채소를 주로 싫어하며 으깬감자요리, 옥수수, 복숭아등을 좋아하였다.

Stasch<sup>4)</sup>는 大學生들을 對象으로 食品嗜好研究를 한 結果 많은 大學生들이 母親의 食習慣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으며 Brown<sup>3)</sup>도 유사한 研究結果를 얻었다. Wilson<sup>3)</sup>은 父親의 食習慣이 子女의 食習慣 育成에 影響이 큰 것을 다른 研究陣과는 대조적으로 報

告하였다. Bryan과 Lowenberg<sup>26)</sup>는 子女에게 미치는 父親의 食習慣影響研究에서 채소에 있어서 약간 발견하였으나 다른 食品種目에서는 별로 발견치 못하였다. 또 食品의 嗜好는 文化, 社會는 물론 家族의 所得에도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Dickens<sup>33)</sup>는 설명하였다.

Schaik<sup>34)</sup>는 食習慣과 家族生活의 關聯性을 強調하면서 거주지역과 통신조건에 따라서도 影響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영향 向上을 試圖하는 意味에서 媒介體를 통한 營養教育이 活發해진 사실이 Higgins와 Montague<sup>35)</sup>에 의해서 報告되었다.

營養教育의 目標은 必須營養素가 골고루 包含된 食事を 골고루 먹도록 하는데 있다. 美國人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食事型은 milk-meat-vegetables-salad-dessert이지만 이것만이 반드시 좋은 食事型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유형을 取하든 必須營養素만 攝取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충분한 營養攝取를 저해하는 要因으로 食品嫌忌와 食品禁忌의 피해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7,12)</sup> Young<sup>13)</sup>은 食品嫌忌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教育시키는 일이라 하였고 Hall<sup>14)</sup>도 어릴때의 시식경험이 높은 食品일수록 食品嫌忌가 적다고 報告한 것을 볼 때 어린이절부터의 子女들에 대한 올바른 營養教育 및 實踐指導가 정상적인 건강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必須不可缺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 2. 研究方法

### 1) 研究對象

國民學校 5學年生 130名, 中學生 200名, 高校生 200名, 合計 530名과 同一對象學生의 父母 1,060名에게 質問紙 A型을 國民學校 5學年生 250名, 中學生 150名, 高校生 100名, 合計 500名과 同一對象學生의 父母 1,000名에게는 質問紙 B型을 配付함으로써 調査하였다.

### 2) 標集(Sampling)

標集의 地域의 범위는 서울市內로 限定시켰고 標集方法은 無選標集(random sampling)과 偏誤標集(biased sampling)을 並用하였다.

### 3) 資料蒐集의 節次와 道具

食習慣 및 食品嗜好에 關한 先行研究調査를 參考로 質問紙를 作成하여 이것을 本調査研究의 測定道具로 삼았다. 資料蒐集의 節次는 먼저 調査의 目的에 따라 두 가지 種類의 質問紙 즉 A型과 B型을 作成하였다.

質問紙 A型은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度를 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B型은 各種 食習慣의 傾向을 調査하기 위한 것이다. 質問紙의 配付 및 回收는 對象으로 選定된 學校의 學生을 通하여 實施하였고

反應時의 父母子間의 相互影響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質問紙 A型은 各各 1週日間의 時間的 間격을 두고 配付 回收하였다.

質問紙의 回收率을 높이기 위하여 質問紙 A型은 各學級에서 父母의 教育熱이 비교적 높은 學生을 對象으로 配付하였고 質問紙 B型은 學級全員을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回收率은 A型은 100%, B型은 96%였다.

4) 研究期間—1974年 4月 1日~9月 10日.

5) 資料處理方法

質問紙 A型은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度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Chi-square( $x^2$ )에 의한 상관계수 산출을 하였고, B型은 反應傾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백분율(%)로 處理하였다. 統計處理는 computer로 하였다.

### Ⅲ. 結果 및 考察

#### 1.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度

1) 子女의 性別에 의한 父母와의 一致度

① 男學生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比較: 對象은 266名이었고, 總問項 69個中 有意있는 相關도를 보인 問項의 內容과 父母와의 一致度を 比較해 보면 表 3-1과 같다.

ㄱ. 父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相關係數가 가장 높은 問項은 國籍別 料理에 對한 嗜好度로서 特別히 韓式은 4,277이었다. 調理法中 튀김과 구이, 물마시는 習慣, 맛중에서 매운 맛에 對한 嗜好에 있어 父의 影響을 받았다. 食品類에서는 콩자반이 .4799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버터, 어묵, 냉면, 파의 順序를 보여 주었다.

ㄴ. 母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國籍別料理中 서양 음식의 相關係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中國, 韓國 飲食의 順이었다. 맛중에서는 짠맛이 .3158이었고 매운 맛은 .2121이었다. 調理法은 父의 경우와는 달리 튀김을 除外하고는 모두 母의 影響을 많이 받았는데 이중에서 찜(찌개)의 상관도가 가장 높았다. 밥 먹는 속도도 母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

食品類에서는 당근, 도마도, 햄, 들기름, 쇠간의 상관도가 높았다.

ㄷ.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매운맛, 調理法中의 구이, 國籍別料理 네가지는 父, 母 양쪽의 影響을 받았다. 食品中에서는 냉면, 돼지고기, 햄, 생선조림, 어묵, 배추, 무우, 마늘이었는데 이들은 한 가정에 있어서 父母子의 食習慣이 비슷하다고

表 3-1. 男學生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比較  
N=266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상 관 계 수	
		父	母
3	짠맛의 정도	—	.3158
4	매운맛 정도	.1853	.2121
5	물마시는 습관	.2010	—
6	밥먹는 속도	—	.2289
8	각종 조리법중 볶음음식	—	.1781
9	각종 조리법중 국	—	.1535
10	각종 조리법중 튀김	.1432	—
11	각종 조리법중 찜(찌개)	—	.1833
12	각종 조리법중 조림	—	.1232
13	각종 조리법중 구이	.1355	.1742
14	국적별 요리의 기호도 中 서양음식	.3310	.4501
15	〃 中國음식	.2310	.4176
16	〃 韓國음식	.4277	.3947
17	〃 日本음식	.2565	.2787
22	식품기호(진밥)	—	.4002
25	식품기호(국수)	—	.4067
27	식품기호(냉면)	.3854	.4118
31	식품기호(쇠간)	—	.4628
32	식품기호(돼지고기)	.3209	.3229
33	식품기호(돼지비계)	.3220	—
34	식품기호(탕수육)	—	.3205
35	식품기호(햄)	.3618	.4911
36	식품기호(닭찜)	.3890	—
37	식품기호(닭튀김)	—	.3758
38	식품기호(생선조림)	.3662	.3885
40	식품기호(어묵)	.4521	.3238
42	식품기호(새우젓)	.3298	—
44	식품기호(행어포)	—	.4214
47	식품기호(콩자반)	.4799	—
49	식품기호(된장)	—	.3229
51	식품기호(꽃고추)	—	.3841
53	식품기호(배추)	.3721	.3926
54	식품기호(상추)	—	.3700
57	식품기호(무우)	.3658	.3949
59	식품기호(갯일)	—	.3906
60	식품기호(당근)	—	.4589
61	식품기호(도마도)	.3557	.5821
63	식품기호(파)	.3827	—
64	식품기호(마늘)	.3573	.3405
66	식품기호(우유)	—	.3364
68	식품기호(들기름)	—	.4546
69	식품기호(버터)	.4538	—

—: non significant

The level of significance:  $P < 0.05$

表 3-2. 男學生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要約

구분	父	母
전체 問項數	69	69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數	23	34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의 內容	매운맛, 물마시는 習慣, 튀김, 구이, 국적별 요리, 食品(콩자반, 버터, 어묵, 냉면, 파)	짠맛, 매운맛, 밥먹는 速度, 볶음, 찜, 조림, 구이, 국적별 요리, 食品(당근, 도마도, 햄, 들기름, 쇠간)

볼 수 있다.

以上을 정리하여 男學生과 그 父母와의 一致度を 表로 나타내면 表 3-2와 같다.

男學生의 경우 食習慣에 있어서 父보다 母의 影響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相關係數의 絕對值를 比較해 보면 더욱 確實해진다.

② 女學生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比較 : 表 4-1

㉠. 父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에서는 짠맛, 매운맛, 물마시는 習慣, 밥 먹는 速度, 調理法中 조림, 국, 튀김, 國籍別料理 네가지였고 食品類에서는 멸치, 방어포, 생선구이의 相關係數가 높았다. 男學生과 比較해 볼 때 食品 嗜好面에서의 父의 影響은 女學生이 덜 받았다.

이것은 Breckenbridge<sup>31)</sup>의 조사 결과와 不一致하였다.

㉡. 母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에서 짠맛의 相關係數가 .539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단맛, 매운맛의 順이었고 食事後 물 마시는 習慣, 밥 먹는 速度, 調理法中 국, 튀김, 구이, 조림, 國籍別料理는 네가지 모두 누구와 함께 어울려 먹기를 좋아하는 食事 환경과 새로운 飲食에 對한 態度등도 母의 影響을 받았다.

食品類에서는 방어포, 고추장, 탕수육, 생선구이, 호박의 相關度가 높았다. 이중 생선구이는 父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一致度가 높았는데 이것은 Breckenbridge<sup>31)</sup>의 연구 결과와는 對照的이다.

㉢.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짠맛, 매운맛, 물마시는 습관, 밥 먹는 속도 調理法 國籍別料理, 食品中에서 방어포는 父母 양쪽으로부터 影響을 받는 食習慣이었다.

以上을 要約하여 女學生의 食習慣과 그 父母와의 一致度を 表로 나타내면 다음의 表 4-2와 같다.

위 表에 의하여 女學生도 父보다 母의 影響을 더 많

表 4-1. 女學生의 食習慣 父母와의 一致度比較

N=264

문항번호	問項內容	相關係數	
		父	母
1	단맛의 정도	—	.2854
3	짠맛의 정도	.1898	.5396
4	매운맛의 정도	.1558	.2468
5	물 마시는 습관	.1085	.1981
6	밥 먹는 속도	.1937	.0577
9	조리법중 국	.1333	.1860
10	“ 튀김	.1258	.1713
12	“ 조림	.1775	.1464
13	“ 구이	—	.1573
14	국적별 요리기호 중 서양음식	.2681	.4589
15	“ 중국음식	.2870	.4774
16	“ 한국음식	.3348	.4563
17	“ 일본음식	.2502	.3770
18	식사환경(Company)	—	.3560
20	새 음식에 대한 태도	—	.2462
23	식품기호(보리밥)	—	.3260
29	“ (수제비)	—	.3362
31	“ (쇠간)	—	.3617
33	“ (돼지비계)	—	.3252
34	“ (탕수육)	—	.4536
35	“ (햄)	.3482	—
39	“ (생선구이)	.3876	.4063
40	“ (어묵)	—	.3581
41	“ (조개)	—	.3835
42	“ (새우젓)	—	.3337
43	“ (멸치)	.5891	—
44	“ (방어포)	.4080	.4942
48	“ (두부)	—	.3279
50	“ (고추장)	—	.4726
51	“ (꽃고추)	—	.3434
52	“ (시금치)	—	.3652
55	“ (호박)	—	.4162
58	“ (미나리)	—	.3219
60	“ (당근)	—	.3442
91	“ (도마도)	—	.3590
68	“ (들기름)	.3540	—

—: non significant

The level of significance:  $P < .05$

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相關係數의 絕對值를 比較해 보면 더욱 確實해진다.

結論의으로 子女의 性別에 의한 父母와의 一致도는 男, 女 모두 母와의 相關정도가 더 높되 女子쪽이 더

表 4-2. 女學生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要約

그 룹	父	母
전체 問項數	69	69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數	15	32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의 內容	잔맛, 매운맛, 물마시는 習慣, 밥먹는 速度, 국, 튀김, 조림, 국적별 요리 食品(멸치, 햄어포, 생선구이)	단맛, 잔맛, 매운맛, 물마시는 習慣, 밥먹는 速度, 국, 튀김, 조림, 구이, 국적별 요리 食品(햄어포, 고추장, 탕수육, 생선구이, 호박)

높고, 父와의 一致度는 男子쪽이 더 컸다.

子女의 食習慣이 母親의 影響을 더 많이 받는다는 事實은 Stasch<sup>4)</sup>와 Brown<sup>5)</sup>의 研究結果와 一致하며 Wilson<sup>2)</sup>의 報告와는 對照가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男尊女卑思想이 殘存해 있기 때문에 食習慣에 있어서도 家長의 影響을 더 받을 것 같았는데 本 研究 調査는 그 반대로 나왔다.

食習慣中 一致度가 큰 문항內容은 맛과 調理法에 對한 食習慣이었다. 맛중에서는 잔맛의 相關係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매운맛이었다. 기타 食習慣에는 共通性이 없었다.

2) 子女의 出生順位에 의한 父母와의 一致度

① 말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比較: 表 5-1

1. 父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에서 매운맛, 調理法中에서는 튀김의 相關度가 높았고, 國籍別 料理는 어느 것도 相關이 없었다. 食品類에서는 닭찜, 멸치, 냉면, 찌개의 相關係數가 높았다.

2. 母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 잔맛, 매운맛, 단맛, 調理法中 튀김, 찜, 조림, 구이, 國籍別料理 네 가지 물마시는 習慣에서 相關關係를 보였으며 食品類에서는 주로 채소로서 도마도, 당근, 찌얌, 오이, 무우의 相關度가 높았다.

3.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에서 매운맛과 調理法中 튀김, 食品類에서는 냉면, 햄, 찌얌이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 말의 食習慣과 그 父母와의 一致度를 정리하면 다음 表 5-2와 같다.

② 中間子女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比較: 表 6-1

1. 父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 매운맛, 調理法中 국, 조림, 구이 國籍別料理中 中國, 韓國, 西洋飲

表 5-1. 말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比較

N=177

문항	문 항 내 용	상 관 계 수	
		父	母
1	단맛	—	.2654
3	잔맛	—	.4116
4	매운맛	.2295	.3175
5	물마시는 습관	—	.2489
10	조리법 튀김	.1890	.1556
11	" 찜(찌게)	—	.1556
12	" 조림	—	.1462
13	" 구이	—	.2841
14	국적별 요리 서양음식	—	.4519
15	" 중국음식	—	.4103
16	" 한국음식	—	.5078
17	" 일본음식	—	.2990
21	식품기호(된밥)	—	.4082
22	" (진밥)	.4091	—
27	" (냉면)	.4744	.4514
34	" (탕수육)	—	.4488
35	" (햄)	.4120	.4616
36	" (닭찜)	.5410	—
40	" (어묵)	.4296	—
42	" (새우젓)	.4451	—
43	" (멸치)	.4196	—
44	" (햄어포)	—	.4520
46	" (완숙)	—	.4339
49	" (원장)	—	.4308
53	" (배추)	.4202	—
56	" (오이)	—	.5123
57	" (무우)	—	.4902
59	" (찌얌)	.4698	.5394
60	" (당근)	—	.5553
61	" (도마도)	—	.5895
64	" (마늘)	—	.4248
68	" (들기름)	.4193	—

—: non significant

The level of significance: P < .05

食 새로운 飲食에 對한 態度에서 相關關係를 보였으며 食品類에서는 모두 세가지로서 두부, 도마도, 버터였다.

2. 母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 잔맛, 단맛, 신맛 調理法中 볶음, 國籍別料理는 네가지 全部 새로운 料理에 對한 態度에서 一致關係를 보였다.

食品類에서는 父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서 17種이나 되었고 그중에서 콩고추, 국수, 햄, 생선구이, 생선조

表 5-2. 만이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要約

구분	父	母
전체 問項數	69	69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數	12	25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의 內容	매운맛, 튀김, 食品(닭찜, 멸치, 냉면, 깻잎)	단맛, 짠맛, 매운맛, 물마시는 習慣, 튀김, 찜, 조림, 구이, 국적별 요리, 食品(도마도, 당근, 깻잎, 오이, 무우)

림, 닭튀김의 一致度가 가장 컸다.

㉔.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맛중 짠맛, 調理法中 국, 國籍別料理 새로운 飲食에 대한 態度, 食品類에서는 두부만이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을 要約하여 中間子女의 食習慣과 그 父母와의 一致度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 表 6-2와 같다.

③ 막내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比較 : 表 7-1

㉕. 父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물마시는 習慣, 調理法中 국, 國籍別料理중 韓國, 日本, 西洋 음식이 父의 影響을 받았는데 日本 음식에서의 一致도를 보인 것은 막내 子女에게서만 볼 수 있는 特徵이었다.

食品類에서는 콩나물, 콩자반, 빵어포의 相關계수가 높았다.

㉖. 母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짠맛, 매운맛, 밥먹는 速度, 調理法中 볶음과 국, 國籍別料理, 食事 환경에서 相關關係를 보였으며 食品類에서는 고추장, 들기름, 쇠간, 탕수육, 빵어포의 一致度가 가장 컸다.

㉗. 父母 양쪽의 影響을 받는 食習慣

調理法中 국, 國籍別料理中 西洋, 韓國, 日本 음식 食品類中 진밥, 빵어포가 父母 양쪽으로부터 影響을 받는 食習慣이었다.

以上 막내子女의 食習慣과 그 父母와의 一致度를 정리하면 表 7-2와 같다.

以上 出生順位에 따른 父母와의 一致度를 要約하면 만이, 중간, 막내 모두 母와의 一致度가 컸으며 특히 中間子女가 母로부터 받는 影響의 정도가 가장 컸다. 父母의 關心도와 關聯지어 볼 때 만이나 막내子女가 父母의 影響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本 調査研究結果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 一致도가 큰 食習慣內容은 맛과 調理法에 대한 嗜好度였고 기타 內容에서는 일관성

表 6-1 中間子女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일치도 比較

문항	문항 내용	상관계수	
		父	母
1	단 맛	—	.2333
2	신 맛	—	.2163
3	짠 맛	.3223	.6265
4	매운맛	—	.2459
8	조리법 볶음	—	.1820
9	“ 국	.1372	.2415
12	“ 조림	.1887	—
13	“ 구이	.1442	—
14	국적별 요리 서양음식	.2924	.4560
15	“ 중국음식	.3571	.4308
16	“ 한국음식	.2946	.3298
17	“ 일본음식	—	.3409
20	새로운 음식에 대한 태도	.2538	.2225
21	식품기호 (된밥)	—	.3962
22	“ (진밥)	—	.3784
25	“ (국수)	—	.5325
27	“ (냉면)	—	.4040
31	“ (쇠간)	—	.4362
32	“ (돼지고기)	—	.3871
33	“ (돼지비계)	—	.3661
35	“ (햄)	—	.5405
37	“ (닭튀김)	—	.4769
38	“ (생선조림)	—	.4318
39	“ (생선구이)	—	.4883
44	“ (빵어포)	—	.4563
48	“ (두부)	.4559	.3780
51	“ (풋고추)	—	.5596
53	“ (배추)	—	.3661
55	“ (호박)	—	.3688
61	“ (도마도)	.4097	—
66	“ (우유)	—	.3994
69	“ (버터)	.5070	—

—: non significant

The level of significance:  $P < .05$

이 없었다.

또한 母에게서 받는 食習慣 內容의 父보다 훨씬 多樣하였다.

2. 各種 食習慣에 對한 傾向 調査

1) 嗜好面

① 食品에 對한 嗜好

㉕. 좋아하는 食品과 싫어하는 食品 : 子女群과 父母

表 6-2. 中間子女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要約

그 룰	父	母
전체 問項數	69	69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數	11	28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의 內容	짬맛, 국, 조림, 구이 국적별요리, 새로운 음식에 대한 態度, 食品(두부, 도마도, 버터)	단맛, 신맛, 짬맛, 매운맛, 볶음, 국, 국적별 요리, 새로운 음식에 대한 態度, 食品(꽃고추, 국수, 햄, 생선구이, 생선조림, 닭튀김)

群의 食品嗜好中 좋아하는 食品과 싫어하는 食品을 比率이 높은 順序로 10개씩 찾아보면 表 8-1과 같다(參照: 附錄의 食品嗜好調查統計表).

男學生들이 가장 좋아하는 食品은 우유였고, 그 다음이 계란후라이, 쇠고기, 만두의 順이었고, 女學生들은 쇠고기를 가장 좋아하였고 그 다음이 계란후라이, 도마도, 우유였다.

成人群(父母群)中 男性은 女學生과 마찬가지로 쇠고기를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이 참기름, 배추, 상추였고 女性은 배추를 가장 좋아하였고 그 다음이 쇠고기, 만두, 참기름이었다.

대체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食品으로는 쇠고기, 우유, 만두, 도마도, 오이, 상추, 시금치 등이었다. 시금치를 제외한 나머지 食品들은 Young<sup>4,13,18-24,31</sup> 등의 報告와 一致하였다. 特히 쇠고기의 嗜好度가 높은 것은 Low<sup>2,18</sup> 등의 調查結果와 一致하고 있다.

成人 群에 비해 子女 群은 계란과 우유를 더 좋아하였고 成人 群은 매운 食品인 꽃고추와 고추장을 좋아하는 傾向을 보였다. 계란과 우유가 子女 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Young과 Lafortune<sup>13</sup>의 研究結果와는 對照가 되며 Bernice,<sup>19</sup> Breckenbridge<sup>31</sup>, 牽<sup>2</sup>와는 一致가 된다.

싫어하는 食品은 男學生들은 돼지비계를 가장 싫어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진밥, 된밥, 쇠간이었다. 女學生들 역시 돼지비계를 가장 싫어하였고 그 다음은 진밥, 쇠간, 마늘이었다. 比率로 볼 때 女學生들이 더 싫어하는 食品이 많았는데 이것은 Young과 Lafortune<sup>13-15</sup> 등과는 一致하였고 Breckenbridge<sup>31</sup>와는 不一致하였다.

成人 群中 男子는 진밥, 된밥, 돼지비계를 女子는 생선조림, 진밥, 된밥, 돼지비계를 싫어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싫어하는 食品은 돼지비계, 쇠간,

表 7-1. 막내子女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 比較

N=139

問項	內 容	相 關 係 數	
		父	母
3	짬 맛	—	.2738
4	매운맛	—	.2632
5	물마시는 습관	.3199	—
6	밥먹는 속도	—	.3110
8	조리법 볶음	—	.2566
9	“ 국	.1638	.2327
14	국적별 요리 서양음식	.4003	.5105
15	“ 중 국	—	.5286
16	“ 한 국	.5772	.5217
17	“ 일 본	.5084	.3795
18	식사환경(Company)	—	.3379
22	식품기호(진밥)	.3516	.3784
24	“ (콩밥)	—	.4231
27	“ (냉면)	.4225	—
31	“ (쇠간)	—	.5413
34	“ (탕수육)	—	.5435
35	“ (햄)	—	.4826
40	“ (어묵)	—	.4394
44	“ (뱅어포)	.4537	.5274
47	“ (콩자반)	.5112	—
49	“ (된장)	.4446	—
50	“ (고추장)	—	.6094
51	“ (꽃고추)	—	.4533
55	“ (호박)	—	.4792
56	“ (오이)	.4272	—
62	“ (콩나물)	.5296	—
68	“ (들기름)	—	.5988

—: non significant

The level of significance  $P < .05$

表 7-2. 막내子女의 食習慣과 父母와의 一致度要約

그 룰	父	母
전체 問項數	69	21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數	12	69
相關關係를 보여준 問項內容	물마시는 습관, 국, 국적별 요리, 食品(콩나물, 콩자반, 뱅어포)	짬맛, 매운맛, 밥먹는 속도, 볶음, 국, 국적별 요리, 식사환경, 食品(고추장, 들기름, 쇠간, 탕수육, 뱅어포)



表 8-1. 좋아하는 食品과 싫어하는 食品調査(男)

(Unit: %)

그룹 식품 성별	子女群				父母群			
	좋아하는 식품		싫어하는 식품		좋아하는 식품		싫어하는 식품	
	식품명	%	식품명	%	식품명	%	식품명	%
男	우유	80.9	돼지비계	61.0	쇠고기	77.8	진밥	43.9
	계란후라이	79.4	진밥	59.6	참기름	72.2	된밥	35.4
	쇠고기	78.4	된밥	31.9	배추	71.0	돼지비계	28.2
	만두	75.2	쇠간	28.4	상추	70.9	라면	22.6
	도마도	75.1	새우젓	26.2	생선구이	69.7	수제비	21.1
	시금치	74.5	마늘	26.2	우유	67.2	보리밥	17.8
	완숙계란	74.5	돼지고기	22.0	마늘	67.1	국수	16.0
	두부	73.0	풋고추	21.3	시금치	66.5	쇠간	12.9
	콩나물	68.8	파	19.1	풋고추	66.1	햄	12.2
	오이	66.0	국수	18.4	탕수육	65.0	콩밥	11.8
女	쇠고기	81.9	돼지비계	69.8	배추	99.3	생선조림	46.1
	계란후라이	80.4	진밥	46.8	쇠고기	84.2	진밥	41.1
	도마도	79.1	쇠간	41.7	만두	78.5	된밥	40.1
	우유	78.4	마늘	41.0	참기름	77.2	돼지비계	40.0
	오이	77.7	새우젓	36.0	시금치	74.6	라면	32.6
	만두	77.0	돼지고기	32.4	도마도	74.3	돼지고기	18.3
	참기름	74.8	미나리	28.8	상추	73.9	쇠간	16.8
	라면	74.1	파	26.6	오이	73.6	수제비	15.7
	상추	70.5	된밥	26.6	미역	70.3	햄	15.4
	냉면	66.2	탕수육	24.5	고추장	68.9	국수	14.3

진밥, 된밥임을 알 수 있다. 쇠간의 경우에는 率<sup>2,10)</sup> 등의 報告와 일치한다.

어른에 비해 子女群은 마늘, 파, 미나리 등의 냄새 나는 야채를 싫어하였는데 比率로 볼때 女學生들이 더 싫어하였는데 이것은 女學生의 食習慣이 男子보다 좋지 못하다는 率<sup>2)</sup>의 報告와 一致하고 있다.

女學生들이 라면을 좋아하는데 비해 成人群은 男·女 모두 라면을 싫어하였고 국수, 수제비도 싫어하고 粉食에 對한 嗜好度가 낮은 結果를 보여 주었다.

또한 子女群과 父母群을 比較해 볼 때 子女群이 싫어하는 食品數 및 比率이 높았는데 이것은 Metheny<sup>32)</sup>의 報告와 一致하였다.

成人 女子의 경우 생선조림을 가장 싫어한데 비해 생선구이는 60.7%나 좋아하였으며 같은 材料임에도 불구하고 調理法에 따라 嗜好度에 큰 差異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Young과 Lafortune<sup>13)</sup>의 報告와 一致한다. 이런 경우는 女學生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돼지고기, 비계, 탕수육은 싫어하면서 햄은

表 8-2. 먹어본 經驗이 없는 食品調査

(Unit: %)

그룹 食品 性別	子女群		父母群	
	食品名	%	食品名	%
男	어묵	31.2	냉면	10.5
	빵어포	20.6		
	쇠간	14.2		
	탕수육	14.2		
女	어묵	24.5	어묵	12.2
	쇠간	10.8		

55.4%나 좋아하였다. 이 사실은 率<sup>2)</sup>의 研究結果와도 一致한다. 따라서 調理法이 食品嗜好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嗜好度가 낮은 돼지고기, 쇠간에 대한 새로운 調理法의 考案 및 普及이 시급히 요청됨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먹어본 經驗이 없는 食品들

試食經驗이 없어서 자신의 食品嗜好度를 판단할 수 없다는 食品中 比率이 10% 이상인 것만을 간추려보면 表 8-2와 같다(參照: 附錄의 食品嗜好調查統計表).

子女群, 父母群 모두 먹어보지 못한 食品數는 상당수에 달하여서 男學生은 40가지 女學生은 26가지 父群은 29가지 母群은 23가지나 되었다.

女子에 比하여 男子들의 試食經驗이 적었는데 이것은 Hall와 Hall<sup>14)</sup>의 研究結果와 一致하였다.

子女群의 어묵과 쇠간에 대한 比率이 10% 이상이나 되는 점은 2)의 研究結果보다 훨씬 높다. 試食經驗率이 낮은 食品이 本 研究에서는 냉면을 제외하고는 主로 動物性食品으로 나타났으나 McCluney<sup>36)</sup> 등<sup>17)</su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야채종류가 가장 많았다.

表 9. 各種 調理法에 대한 嗜好傾向

(Unit: %)

調理法	그룹		子女群		父母群	
	性別		男	女	父	母
볶음			28.9	28.0	62.0	56.8
국			59.8	64.4	67.3	64.6
튀김			30.1	25.4	45.3	52.1
찜(찌게)			44.0	42.8	24.9	26.4
조림			73.7	73.1	22.7	26.1
구이			63.9	66.7	58.7	64.2

표 10. 國籍別料理에 對한 嗜好傾向

(Unit: %)

國籍別料理	그룹		子女群		父母群	
	性別		男	女	父	母
西洋 음식			23.3	17.0	12.6	10.2
中國 음식			31.2	19.3	20.9	13.8
韓國 음식			43.6	63.3	41.2	60.6
日本 음식			2.3	0.8	25.3	15.5

② 各種 調理法에 對한 嗜好傾向

여섯가지 調理法中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세가지씩 고르도록한 結果, 子女群은 男女를 不問하고 조림, 구이, 국을 좋아하였고, 父母群은 국, 볶음, 구이의 順으로 좋아하였고.

따라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調理法은 국과 구이임을 알 수 있었다.

③ 國籍別料理에 對한 嗜好傾向

네가지 음식을 좋아하는 順序대로 번호를 쓰게 시킨 結果 韓式은 누구나 다 좋아하였고 外國飲食에 對한 嗜

表 11-1. 飲食만들때 생각하는 우선순위 조사

(Unit: %)

變因 水準 反應內容	教育水準			經濟水準		
	上	中	下	上	中	下
맛	46.7	33.7	38.4	28.3	35.7	32.8
營 養	46.7	42.1	31.1	56.7	41.4	32.3
費 用	6.6	24.2	30.5	15.0	22.9	34.9

好度는 子女群과 父母群에 따라 다른 傾向을 보여주었다.

子女群은 男女 모두 中國飲食을 가장 좋아하였고 日本飲食을 가장 싫어하였다. 中國飲食을 좋아하는 理由는 試食經驗이 다른 飲食에 比하여 많기 때문인 것 같고, 日本음식을 싫어하는 理由로는 日本에 對한 偏見 및 試食經驗의 不足에 기인되는 것 같다.

반면에 어른들은 日本음식을 가장 좋아하였고 西洋 음식에 대한 嗜好度가 낮았는데 이것은 試食經驗의 多少에 기인되는 것 같다.

2) 營養 및 食事行動(Nutritional and Dietary Behavior)

① 營養知識: 다음의 세가지 問項에 의해 營養知識을 調査하였다.

7. 飲食을 만들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에 따라 調査한 結果는 表 11-1과 같다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높은 主婦일수록 調理時에 營養을 重視하였고 낮은 층에서는 맛과 費用에 置重하였다.

表에서 볼 수 있듯이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中間層 主婦들이 食生活運營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 같다.

나. 다섯가지 基礎食品에 對한 知識

男子보다 女子들이, 또한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다섯가지 基礎食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다. 飲食과 營養攝取와의 關係

음식을 배분리 먹기만 하면 自然的으로 必要的인 營養이 攝取되는가에 對한 反應은 表 11-3과 같다.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올바른 營養知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調査結果를 통하여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높아질수록 營養知識도 比例함을 알 수 있다. 또한 男子보다는 女子들의 營養지식이 더 많은 結果를 나타내었다.

表 11-2. 다섯가지 基礎食品에 대한 知識調査

(Unit: %)

反 應 內 容	父	母						子 女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教 育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國男	國女	中男	中女	高男	高女
잘 안다.	30.9	68.6	54.2	37.9	58.4	60.9	34.8	13.9	29.2	21.0	96.0	14.5	89.0
들어보았지만 모르겠다.	47.8	25.7	37.3	41.8	33.8	27.2	47.2	26.1	27.7	19.0	4.0	41.0	9.0
들어본 일 없다.	21.3	5.7	8.5	20.3	7.8	11.9	18.0	60.0	43.1	6.00		44.5	2.0

表 11-3. 飲食과 營養攝取와의 關係

(Unit: %)

反 應 內 容	父	母						子 女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教 育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國男	國女	中男	中女	男高	高女
그렇다.	13.8	11.4	10.9	18.9	7.8	13.2	13.3	12.3	24.6	17.0	8.1	8.2	3.1
잘 모르겠다.	6.1	2.9	5.9	12.2	6.3	4.4	26.0	16.9	12.3	17.0	4.9	9.4	5.1
그렇지 않다.	80.1	85.7	83.2	6.89	85.9	82.4	60.7	70.8	63.1	66.0	87.0	82.4	91.8

表 12-1. 家族의 營養에 대한 關心調査

(Unit: %)

反 應 內 容	區 分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늘 생각한다		68.6	75.3	65.6	75.3	74.1	63.3
가끔 생각한다		31.4	21.7	31.2	23.2	23.0	29.1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3.0	3.2	1.5	2.9	7.6

表 12-2. 飲食만들 때의 생각하는 우선순위 조사

(Unit: %)

反 應 內 容	區 分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男 便		32.1	53.8	62.0	35.3	54.7	56.2
媳 父 母		5.2	5.8	0.9	1.5	3.1	1.9
子 女		52.8	31.4	31.5	63.2	34.6	32.3
나(主婦)		6.4	2.9	2.1		3.2	4.8
其 他		3.5	6.1	3.5		4.4	4.8

② 家族의 營養에 대한 關心: 主婦들을 對象으로 教育水準, 經濟水準別로 가족의 영양에 對한 關心度를 調査한 結果는 表 12-1과 같다.

ㄱ. 家族의 營養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家族의 營養에 대한 關心度가 가장 높은 主婦는 教

育水準은 中間層, 經濟水準은 上流層으로서 대체로 教育水準, 經濟水準에 比例하여 그 關心度도 높아지는 傾向을 보여 주었다.

ㄴ. 飲食을 만들때 食口중 누구를 爲主로 만드는가?  
大部分의 主婦들이 男便과 子女 위주로 飲食을 만들

表 12-3. 子女의 間食에 대한 關心 調査

(Unit: %)

區 分 反 應 內 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줌	54.2	73.8	53.9	55.3	71.2	65.1
주부가 선택하여 사줌	45.8	21.4	21.6	43.1	21.0	15.9
돈으로 주고 간섭하지 않음		4.8	24.5	1.6	7.8	19.0

表 12-4. 子女의 食事に 대한 關心調査

(Unit: %)

區 分 反 應 內 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내버려 둔다		15.2	18.8	28.2	16.1	13.6
강제로 먹인다	2.8	4.9		7.4	4.9	1.9
야단을 친다	8.6	7.9	18.6	1.4	10.2	12.3
달래가면서 먹인다	88.6	72.0	62.6	63.0	68.8	72.2

表 13-1. 飲食과 補償關係 調査

(Unit: %)

問 項	區 分 反 應 內 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ㄱ	자 주	31.4	31.9	25.8	33.3	29.9	17.5
	가 끄	48.6	55.9	57.0	48.5	55.6	67.0
	전 혀 없 다	20.0	12.2	17.2	18.2	14.5	15.5
ㄴ	자 주		3.0	3.9	4.2	2.5	4.4
	가 끄	11.4	25.0	16.4	8.3	11.7	13.4
	전 혀 없 다	88.6	72.0	79.7	87.5	85.8	82.2

있는데 教育經濟水準이 높은 층에서는 子女를 爲主로 낮은 층에서는 子女보다 男便을 위주로 하였다.

ㄴ. 子女의 間食에 對한 關心: 아이들의 間食을 사 줄 경우 어떻게 하는 가에 대한 主婦들의 反應은 다음 表 12-3과 같다.

教育經濟水準이 中間層의 主婦들은 子女가 좋아하는 것을 주로 사주었고 上流層의 主부일수록 主婦 自身이 直接 선택하여 줌으로써 가장 높은 關心度를 보였고 가장 無關心한 계층은 教育經濟水準이 가장 낮은 층의 主婦였다.

ㄷ. 子女들이 밥을 안먹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어느 계층의 主婦나 달래가면서 먹이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教育水準이 높은 층의 主婦가 가장 심하였다.

그런데 이런 現象은 教育的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特히 經濟水準 上流層 主婦들이 강제로 먹이는 率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더욱 좋지 않다고도 Hicks<sup>30)</sup>는 強調하였다.

③ 飲食과 補償關係

ㄱ.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때 밥을 굶겨 본일이 있는가?

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을 하였을 때 먹는 것을 잘 사주는가?

飲食을 償罰의 수단으로 利用하는 점에서는 主婦의 教育, 經濟水準의 高低에 別差가 없었다.

教育水準이 높은 層의 主婦들마저 상당수의 사람들이 飲食을 償罰의 수단으로 利用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現象이라 하겠다.

Hicks<sup>30)</sup>의 食習慣研究에서도 많은 父母들이 飲食을

表 13-2. 感情表現과 食事拒否關係調査

(Unit: %)

反應內容	區 分					
	國·男	國·女	中·男	中·女	高·男	高·女
자 주	13.9	9.2	3.0	14.0	11.1	17.1
가끔	60.0	66.2	63.0	46.0	53.1	35.2
전혀 없다	26.1	24.6	34.0	40.0	35.8	47.7

表 14-1. 飮食 먹을 때의 態度 調査

(Unit: %)

反應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말없이 조용히 먹는다	82.4	88.6	81.5	97.1	81.0	87.6
이야기를 하며 떠드는 편	17.6	11.4	18.5	2.9	19.0	12.4

表 14-2. 飮食먹을 때의 바람직한 態度 調査

(Unit: %)

反應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조용히 먹는 것이 좋다	33.3	37.5	36.0	25.3	35.9	44.5
마음껏 떠들며 먹는 것이 좋다	9.1	5.9	9.3	2.7	6.8	10.9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다	57.6	56.6	54.7	72.0	57.3	44.6

表 15-1. 매스콤에 대한 主婦의 關心度 調査

(Unit: %)

反應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한번쯤 아이들에게 사서 먹인다	48.8	57.7	38.2	70.0	55.9	42.5
광고에 별로 관심이 없다	35.6	11.1	44.0	22.1	29.0	45.8
주로 광고에 나오는 것을 산다	15.6	31.2	17.8	7.9	15.1	11.7

價罰의 수단으로 利用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子女의 食習慣形成에 좋지 않음이 指摘되었다.

ㄷ. 화가 나거나 父母에게 不滿이 있을 때 밥을 굶는 버릇이 있는가? (對象: 學生)

연령이 어릴수록 不滿스러운 感情의 表示로서 음식을 거부하는 傾向을 보여주었다.

④ 飮食을 먹을 때의 態度

主婦를 對象으로 다음의 두가지 質問을 한 結果는 表 14-1, 表 14-2와 같다.

ㄴ. 음식 먹을 때의 態度가 어떠한가?

ㄴ. 아이들이 음식먹을 때의 態度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의 態度에는 主婦의 教育的, 經濟的 水準이 별로 影響을 못 미치는 것 같다.

⑤ 매스콤의 影響: 텔레비나 라디오등에 광고되는 間食類에 대하여 얼마나 關心이 있는가를 主婦와 子女를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ㄷ. 主婦의 關心度

教育 經濟水準이 中間層 主婦들이 광고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는 結果를 나타내었다. 광고에 無關心한 層

表 15-2. 매스콤에 대한 子女의 關心度

(Unit: %)

區 分 反應 內容	國·男	國·女	中·男	中·女	高·男	高·女
	한번쯤 사먹어 본다	47.7	52.3	31.0	46.0	42.0
광고에 관심이 없이 사먹는다	30.8	18.5	50.0	17.0	44.4	24.5
주로 광고에 나오는 것을 산다	21.5	29.2	19.0	37.0	13.6	21.4

表 16-1. 料理講習 參加率 調査

(Unit: %)

區 分 反應 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여 러 번	28.6	21.9	8.2	32.4	15.5	12.7
한 두 번	54.3	48.0	38.8	44.1	51.8	37.6
전혀 가본일 없다	17.1	30.1	53.0	23.5	32.7	49.7

표 16-2. 텔레비의 料理講習프로 視聽率 調査

(Unit: %)

區 分 反應 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꼭 본다	18.2	18.1	6.1	28.8	22.9	6.1
가끔 본다	57.6	68.2	48.0	51.5	65.7	48.3
별로 안본다	24.2	13.7	45.9	19.7	11.4	45.6

表 16-3. 料理雜誌 購讀率 調査

(Unit: %)

區 分 反應 內容	教 育 水 準			經 濟 水 準		
	上	中	下	上	中	下
定期 購讀	2.9	6.1	1.3	15.3	5.7	3.2
가끔가서 읽는다.	71.4	61.8	31.5	52.5	57.2	36.7
별로 關心이 없다	25.7	32.1	67.2	32.2	37.1	60.1

은 上流와 下流層이었는데 上流層의 主婦는 한번쯤 아이들에게 사서 먹여보나 無分別하게 광고에 依存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下流層에서는 비교적 文化的 惠擇을 못받는데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ㄴ. 子女의 關心度

子女들은 男學生보다 女學生이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광고에 影響을 많이 받았다.

⑥ 새로운 調理에 대한 主婦의 進取性

ㄱ. 料理講習에 가본일이 있는가?

教育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料理講習 參加率이 높았

다.

ㄴ. 텔레비의 料理講習時間을 보는가?

텔레비의 料理講習 視聽率이 가장 높은 主婦는 教育 經濟水準이 中間層의 主婦였다.

ㄷ. 料理에 關한 雜誌를 자주 사서 읽는가?

定期購讀率이 가장 높은 階層은 教育水準이 中流, 經濟水準이 上流層이었고 下流層에서는 料理雜誌에 가장 無關心하였다.

ㄹ. 텔레비를 보거나 料理講習에 다녀올 후 음식을 자주 만들어 보는가?

表 16-4. 料理講習後 實習現況

(Unit: %)

反應內容	教育水準			經濟水準		
	上	中	下	上	中	下
자주	41.2	29.4	16.2	33.3	35.3	10.8
한번쯤	38.2	46.3	28.9	47.2	44.4	39.2
별로 만들지 않음	20.6	24.3	54.9	19.5	20.3	50.0

表 16-5. 調理時 影響을 주는 要因調査

(Unit: %)

反應內容	教育水準			經濟水準		
	上	中	下	上	中	下
料理冊이나 강습, 텔레비존	45.7	37.4	10.6	35.4	20.8	14.5
親庭집의 習慣	11.4	11.2	15.8	10.2	23.3	12.7
내나름대로 만들	25.7	38.3	61.8	43.6	42.6	54.1
媳宅의 慣習	17.2	13.1	11.8	10.8	13.3	18.7

表 17. 食習慣 變化率

(Unit: %)

反應內容	父	母	子 女			
			中·女	中·男	高·男	高·女
많이 變했다	28.6	28.5	36.0	22.0	17.2	12.7
조금 變했다	50.8	55.9	47.0	60.0	71.4	48.2
전혀 變하지 않았다	20.6	15.6	17.0	18.0	11.4	39.1

表 18. 食習慣 變化的 時期調査

(Unit: %)

反應內容	父	母	子 女 群			
			中·男	中·女	高·男	高·女
國民學校 前			40.0	18.0	6.4	
國民學校 때	2.1	2.1	15.0	11.0		9.3
中學校 때	2.1	3.8	45.0	71.0	48.4	55.8
高等學校 때	7.2	8.3	—	45.2	34.9	57.6
結婚以後	82.5	—				
職場生活以後	31.0	3.3				

教育 經濟水準이 中流以上の 主婦들이 배운 知識을 실제로 應用하려는 努力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Sarah<sup>37)</sup>의 報告와 일치한다.

□. 집에서 음식만들때 무엇이 影響을 가장 많이 받는다? 表 16-5

教育 經濟水準이 낮은 階層일수록 자기나름대로 음식

식을 만드는 率이 높았고, 料理冊이나 講習등의 影響을 많이 받는 層은 上流層이었다.

親庭과 媳宅의 慣習은 그 影響力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 食習慣 變化面

① 食習慣 變化與否

表 19. 食習慣變化의 原因調查

(Unit: %)

反應內容	區分	父	母	子女群			
				中·男	中·女	高·男	高·女
父母의 影響		3.3	5.6	18.0	23.0	16.7	12.4
親舊의 影響		2.3	1.7	6.0	2.0	6.7	12.4
配偶者의 影響		51.6	55.3	—	—	—	—
學校教育의 影響		2.8	1.1	16.0	19.0	6.6	11.1
우연히 變함		40.0	36.3	60.0	56.0	70.0	64.1

대체로 70% 以上の 사람들이 成長過程에서 食習慣이 變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Sellings와 Ferraro<sup>8)</sup>, György<sup>9)</sup>의 報告와는 對照가 되며 Wenkam과 Walff<sup>10, 31)</sup> 등의 報告와는 一致한다.

② 食習慣變化의 時期: 表 18.

成人들은 結婚以後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女性들은 82.5%나 되었다. 이것은 Saran<sup>37)</sup>의 報告와 一致하는 結果이다.

男子들은 結婚 뿐만 아니라 職場生活을 하게 됨으로 同僚들에게 받는 影響도 크게 나타났다.

子女群은 中, 高校 時節의 思春期과 더불어 食習慣도 變化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Young과 Lafortune<sup>13)</sup>이 思春期에는 싫어하는 食品이 增加된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ㄷ. 食習慣變化의 原因

食習慣變化의 原因은 成人들은 男, 女 모두 結婚後 配偶者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Sarah<sup>37)</sup>의 報告와 一致한다.

子女들은 우연히 變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父母와 學校教育의 影響도 無視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結論 및 提言

1. 結論

本 研究에서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度

① 性別에 의한 父—母—子의 一致度

男女 모두 父보다 母의 影響을 많이 받되 女子가 더 母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

食習慣中에서 一致도가 큰 問題內容은 맛과 調理法에 對한 嗜好度였고, 母로부터 받는 食習慣의 內容이 훨씬 多樣하였다.

食品은 좋아하는 食品과 싫어하는 食品의 一致가 컸다.

男子는 食品에 對한 嗜好面에서 女子는 맛과 調理法, 食事行動面에서 父母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② 出生順位別 一致度

말이, 중간, 막내 모두 母의 影響을 더 많이 받는다. 出生順位로 볼 때 中間子女의 母와의 一致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말이 '막내의 順序였다.

父母와의 一致도가 크게 나타난 食習慣은 맛과 調理法에 대한 嗜好度였고 母로부터 받는 食習慣의 內容이 훨씬 多樣하였다.

2) 各種 食習慣에 對한 傾向調查

① 嗜好面

食品에 對한 嗜好傾向: 性別, 年齡別에 關係없이 一般의으로 다 좋아하는 食品은 쇠고기, 우유, 만두, 도마도, 오이, 상추, 시금치였고, 싫어하는 食品은 돼지비계, 쇠간, 진밥, 된밥, 돼지고기였다.

食品에 대한 試食經驗은 男子보다 女子가 더 많았다.

調理法에 대한 嗜好傾向: 一般의으로 다 좋아하는 調理法은 국과 구이였다.

國籍別 料理에 대한 嗜好傾向: 韓式은 누구나 다 좋아하였고 外國음식의 경우에는 成人群은 日本食을, 子女群은 中國음식을 좋아하였다.

② 營養 및 食事行動面(Nutritional and Dietary Behavior)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營養知識, 家族의 營養에 대한 關心度, 새로운 料理에 對한 進取性이 높았고 Food Attitudes, 음식과 補償關係는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과 無關하였다.

③ 食習慣變化面: 調查對象中 食習慣이 變한 사람은 70% 以上に 達하였으며 變化의 原因과 時期는 成人群은 結婚이후 配偶者의 影響이 가장 컸고, 子女群은 中, 高校 時節에 우연히 變하는 사람이 많았다.

2. 提言

父母中 子女들에게 미치는 食習慣의 影響은 母쪽이



더 크므로 女性들에 對한 올바른 食習慣指導 및 營養教育이 必要하다.

食品嗜好調査에 있어서 같은 材料임에도 불구하고 調理法에 따라 嗜好度에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을 볼 때, 특히 싫어하는 食品들에 對한 새로운 調理法의 考察 및 普及이 要請된다.

主婦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대체로 子女들에 대한 營養 教育指導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음식을 償罰의 수단으로 利用하는 점과 Food Attitudes 面등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教育을 많이 받는 女性들의 覺醒이 要請된다.

食習慣變化率이 70% 以上인 점을 볼 때 어머니의 努力如何에 따라 子女의 食習慣이 어느 정도 是正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 要 約

本 研究은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도와 또한 이 사람들의 各種 食習慣의 傾向을 調査하여 營養教育資料를 얻는데 그 目的이 있다. 調査對象은 서울시內에 거주하는 國民學校부터 高等學校까지의 男女學生 1,000名과 同一對象學生의 父와 母 2,000名을 對象으로 하고, 調査方法은 質問紙法(questionnaire)을 使用하였다.

資料는 Chi-Square( $\chi^2$ )에 의한 相關係數와 百分率로 統計處理하였다.

調査結果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 1. 食習慣에 있어서의 父母子의 一致度

子女의 性別, 出生順位別 모두 父보다 母의 影響이 더 컸다. 특히 性別로 볼 때 女子와 出生順位로 볼 때 中間子女가 母와의 相關정도가 높았다.

### 2. 各種 食習慣에 對한 傾向調査

1) 嗜好面: 性別, 연령별에 相關없이 一般적으로 다 좋아하는 食品은 쇠고기, 우유, 만두, 도마도, 오이, 상추, 시금치였고 싫어하는 食品은 돼지비계, 쇠간, 진밥 돼지고기였다.

2) 營養 및 食事行動面: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이 높을수록 營養知識, 家族의 營養에 對한 關心度, 새로운 調理法에 對한 進取性이 높았고 Food Attitudes, 음식과 補償관계는 主婦의 教育水準, 經濟水準과 無關하였다.

3) 食習慣變化面: 調査對象中 食習慣이 變換 사람은 70% 以上에 達하였으며 變化의 原因과 時期는 結婚이

후 配偶者의 影響이 가장 컸다.

以上の 結果를 通하여 各 家庭에 있어서 主婦의 子女들에 對한 올바른 營養指導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主婦의 教育水準이 높다고 하여 子女들에 대한 營養教育面이 모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므로 教育받은 女性들의 責任과 自覺이 시급히 要請됨을 알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 1) 朴日和外: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대출판부 개정판, 1976, 98.
- 2) 牟壽美: 韓國女性의 食習慣과 營養問題에 관한 研究, 亞細亞 女性研究 第8集, (1969. 12)
- 3) Wilson, M.M.: *Food beliefs are related to ecological factors in women.*, Jr. Home Ec. 60:115, 1968.
- 4) Stasch, A.R. et al.: *Food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some college students.*, Jr. Am. Dietet. A. 57:523, 1970.
- 5) Brown, E.L.: *College students Look at the basis for their food habits.*, Jr. Home Ec., 59:784, 1967.
- 6) 玄己順: 低所得家庭의 食生活實態調査, 大韓家政學會誌, 제 6 호, 1968, 11.
- 7) Mo, S.: *A Study of food taboos in agricultural villages in Korea.*, Jr. of Korean Home Ec. Ass., 5, 1966.
- 8) Selling, L.S. and Ferraro M.A.S.: *Food Habits, fads, customs and aversions.*, The psychology of diet and nutrition., W.W. Norton and Company, Inc. N.Y. 1945, p. 34.
- 9) Burgess, A. and Dean, R.F.A.: *The Social psychology of food habits.*, Malnutrition and food habits.,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1962, p. 78.
- 10) Wenkam, N.S. and Wolff, R.J.: *A Half Century of changing food habits. Among Japanese in Hawaii.*, Jr. Am. Dietet. A., 67: 29, 1970.
- 11) Mitchell, H.S. et al.: *Assessment of patient needs.*, Nutrition in Nursing,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72, p. 177.

- 12) Potgietet, J.F. and Theron, J.J.: *Food Habits and Food Taboos in South Africa VII<sup>th</sup> International Congress of Nutrition., Abstracts of papers, Hamburg, 1966, p. 141.*
- 13) Young, C.M. and Lafortune, T.D.: *Effect of food preferences on nutrient intake., Jr. Am. Dietet. A., 33:98, 1957.*
- 14) Hall, I.S. and Hall, O.S.: *A Study of disliked and unfamiliar foods., Jr., Am. Dietet. A., 15:540, 1939.*
- 15) Wallen, R.: *Sex Differences in food aversions., J. Appl. Psychol., 27:288, 1943.*
- 16) Leverton, R.M., *Freshman food likes.: Jr. Home Ec. 36:589, 1944.*
- 17) Eppright, E.S.: *Food Habits and Preferences: A study of Iowa people of two age groups., Iowa Agric Exper. Sta. Res. Bull., 376, 1950.*
- 18) Law, H.M. et al.: *Sophomore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school lunch., Jr. Am. Dietet. A., 60:38, 1972.*
- 19) Bernice Chase Schorn, *Teen-age food habits.: Jr. Am. Dietet. A., 61:Oct., 1972.*
- 20) Einstein, M.A. and Hornstein, I.: *Food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and nutritional implication., J. Food Sci., 35:429, 1970.*
- 21) Kennedy B.M.: *Food Preferences of pre-army age California boys., Food Tech., 6:93, 1952.*
- 22) Lamb, M.W., Adams, V.J. and Godfey, J.: *Food preferences of college women., Jr. Am. Dietet. A., 30:1120, 1954.*
- 23) Leverton, R.M. and Coggs, M.C.: *Food choices of Nebraska children., Jr. Home Ec., 1951.*
- 24) Schuck, C.: *Food preferences of South Dakota college students., Jr. Am. Dietet. A., 1961.*
- 25) Young, C., Waldner, B.G. and Berresford, K.: *What the homemaker knows about nutrition. IV. Food problems, shopping habits and sources of information., Jr. Am. Dietet. A., 32:429, 1956.*
- 26) Bryan, M.S. and Lowenberg, M.E.: *The father's influence on young children's food preferences., Jr. Am. Dietet. A., 34:30, 1958.*
- 27) Lamb, M.W. and Ling, B.C.: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nd preferences of nursing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17:187, 1946.*
- 28) Vance, T.F.: *Food selections of nurse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3:169, 1932.*
- 29) Abbott, O.D., Townsend, R.O. and French, R.B.: *A Survey food preferences of Florida Men., Fla. Agric. Exper. Sta. Bull., 500, 1952.*
- 30) Hicks, C.B.: *Says Fat Little Johnny's Mother., Today's Health., Feb. p. 1, 1970.*
- 31) Breckenbridge, M.E.: *Food attitudes of five to Twelve Year Old Children., Jr. Am. Dietet. A., 35:704, 1959.*
- 32) Metheny, N.Y. et al.: *The diets of pre-school children; Fathers in Food Acceptance., Jr. Home Ec., 54:303, 1962.*
- 33) Dickins, D.: *Factors related to food preference., Jr. Home Ec., 57:427, 1965.*
- 34) Schaih, T.F.S.M.V.: *Food and nutrition relative to family life, Jr. Home Ec., 56:225, 1964.*
- 36) Higgins, M. and Montague, J.: *Nutrition education through the mass media in Korea., Jr. Nut. Ed., 4:1, Spring, 1972.*
- 36) Mocluney, K.: *A Study of food likes and dislikes., Unpublished thesis, Texas State College for Women., Denton, Tex., 1970.*
- 37) Sarah, Bavly.: *Changes in food habits in Israel., Jr. Am. Dietet. A., 48, June, 1966.*